현재형의 민속축제

강릉 단오제

심 상 교 | 부산교육대 교수

대관령 꼭대기에 서 보았는가? 거기서 생명의 무늬를 보았는가? 사랑의 무늬를 보았는가? 나아가 생명과 사랑의 무늬가 몸으로 스며드는 황홀을 경험하였는가?

대관령에 서면 멀리 푸르게 펼쳐진 하늘과 동해바다가 보이고 시선을 조금 당기면 경포호수와 논밭 그리고 남대천과 작은 산들이 보인다. 그 사이에는 이미지처럼 박혀있는 집들이 있다. 시선을 조금 더 당기면 굽이진 대관령길과 은은한 계곡이 보인다. 이 모습은 계절마다 다르고 낮과 밤에 다르다. 강릉단오제는 이러한 자연적 배경에서 태어났다.

단오제는 강릉만의 축제는 아니었다. 추석, 설날 같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민속축제였고 여름이 바쁜 도작문화의 쉼터였다. 힘든 노동의 연속 안에서 단오는 사람들에게 놀이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강릉단오굿의 성주굿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의 강릉단오제

단오날은 음력 5월 5일(이하 음력)이지만 강릉단오제의 본 축제는 5월 3일 저녁부터 5월 7일 밤까지 4박 5일간 강릉 단오장에서 열린다. 단오장은 강릉 남대천변에 마련된다.

5월 3일부터 단오가 끝나는 7일 늦은 밤까지 불야성을 이루며 단오제가 열린다. 단오제 기간동안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의례로는 영신제, 정씨댁제의, 조전제, 강릉단오굿, 강릉탈놀이(관노가면극), 강릉학산오독떼기, 그네타기, 씨름, 농악놀이, 투호, 민요경창, 송신제 등이 있다. 이들 행사는 단오장에 마련된 단오굿당과 어울마당, 놀이마당, 대동마당 등에서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강릉의 민속외에 풍물등의 경연대회와 전국 각지에서 초청되어 온 여러 민속연희와 전통연희 명인들의 초대공연이 열린다. 단오장에는 민속행사 외에 각종 물건을 파는 곳과 음식점, 주점이 마련된다. 남대천변을 따라 2㎞정도의 길

이로 형성된 난장이 여섯 줄을 이룬다. 거대 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난장의 지나친 형성으로 고유의 민속행사가 훼손되거나 현재의 건강한 시민문화마저 타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오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비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서정연하고 깔끔하고 산뜻한 도시적 분위기만을 좋아한다면 강릉단오제는 무질서하고 남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강릉 단오제는 도시적 분위기를 지향하는 축제가 아니다. 시골장터같이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를 지향한다.

성기고 힘없는 백발이지만 단정히 빗어넘긴 할머니의 쪽진 머릿결과 웃옷을 풀어헤친 채 술주정을 하는 아저씨의 거친 태도, 그리고 그의 때묻은 손, 펑크머리에 힙합바지를 입은 젊음, 넋잃고 솜사탕을 바라보는 동심 등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단오제다. 현학을 용납하지 않으며 권위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 또한 단오제다. 단오제는 굿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습에 천착하며 주변의 난장을 통해 삶의 진솔한 측면에 다가간다.

강릉단오굿의 심청굿

독특한 멋, 독특한 의식

그런데 강릉단오제는 단오날보다 한 달 앞선 4월 5일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월 5일은 신주근양이라 하여 단오제에 바쳐질 술을 빚는 날이다. 강릉시청 옆에 위치한 칠사당(七事堂)에서 부정굿을 한 다음 쌀과 누룩으로 술을 빚는 의식인 것이다.

신주제조는 막걸리 주조방식과 비슷하나 그 맛과 향이 신비롭다. 신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복(福)술로 받아들여지는 탓에 단오제가 시작되는 5월 4일의 조전제후 음복순서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특히 굿당의 절대다수인 할머니들의 경우 입에 대보기만 해도 장수한다고 생각하여 다툼이 생길 정도다. 올해의 특이한 점은 강릉시민들로부터 쌀을 헌납 받아 다량의 신주를 만들어 5월 3일 영신제가 있던 날 강릉시내 지정된 몇 곳에서 신주를 마음껏 음복, 복에 흠뻑 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행사는 음주에 의지해 축제의 생명력을 발산토록 한 동서양 축제의 근원적 모습에 가까운 것이다.

1. 강릉단오굿의 용선놀이
2. 강릉단오굿 탈굿의 삭불이

단오를 20일 앞둔 4월 15일에는 대관령산신제, 국사서낭제, 국사서낭행차,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여성황사봉안제, 강문진또배기제 등이 열린다. 대관령산신제와 국사서낭제는 대관령에 있는 산신각과 국사성황사에서 열린다.

산신각과 국사성황사는 대관령휴게소에서 1.5㎞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다. 대관령휴게소에서 산등성이의 시멘트포장길을 따라 가면 산신각과 국사성황사가 있는데 평소 인적이 없던 이곳은 4월 15일이 되면 여러 명의 교통경찰이 정리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신령스러움이 남다르다는 것 때문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가족의 복을 비는 아주머니들, 무격수업을 하는 사람들, 민속문화에 관심있는 대학생들, 연구자들, 사진작가들로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성황제의 기원과 절차

문헌마다 기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관령 산신으로 모셔지는 인물은 김유신 장군이고 국사성황신으로 모셔지는 인물은 라말여초의 승려 범일국사다. 토지신으로 산신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강릉단오제의 신은 성황신인 범일국사가 주신으로 모셔진다.

범일국사는 강릉의 학산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탄생 이야기는 일조형(日照形), 음조형(飮照形)의 신화구조로 되어 있다.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이렇다. 양가집 처녀가 석천(우물)에서 물을 긷다가 표주박에 해가 비치자 그 물을 먹고 아이를 낳았다. 지아비 없이 아이를 낳았다하여 아이를 버렸으나 학이 아이를 보호하길래 다시 데려다 키웠다. 이름을 범이라 한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 출가하였다가 국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강릉의 학산동에 굴산사와 부근에 신복사라는 큰 절을 개창했다. 후일 그는 대관령의 성황신(일부 문헌에는 산신)이 되었다.

쉽게 표현하면 범일은 독생자이고 범일의 어머니는 동정녀인 셈이다. 현재 강릉의 학산동에 가면 범일의 잉태를 가능하게 했던 석천과 굴산사터의 흔적인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국사성황신과 산신을 모시는 성황제와 산신제가 생명과 사랑의 무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대관령에서 열린다. 이 제의에서 초헌관은 강릉시장이 맡는다. 성황제가 끝나면 무격들에 의해 국사서낭을 모시는 굿과 신목을 모시는 굿이 이어진다. 신목잡이가 산을 오르다가 한 묶음 굵기의 나무를 선택한다. 신목잡이가 나무를 잡고 있으면 무격이 옆

에서 제금을 치며 신이 내리기를 요청한다. 잠시후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황신이 내린 것으로 인식한다.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의 굵기와 뻗어 나간 곁가지를 고려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저렇게 일정하게 흔들 수 없다고 생각된다. 신목이나 신간의 떨림은 다른 굿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인위적인 요소는 없다.

신목이 선택되면 이를 베어 들고 국사성황사까지 내려온다. 이때 사람들은 이름과 소원을 적은 초록, 노랑, 빨강의 천을 신목에 묶으며 비손한다. 이어 신목은 국사성황신을 모시는 행차의 일원이 되어 강릉시내의 여성황사까지 오게 된다. 행차는 국사성황신위를 든 제관이 앞서고 이어 신목을 든 신목잡이와 다른 제관들, 무격들이 뒤따른다. 국사성황사에서 대관령 중턱까지는 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관령 옛길을 따라 도보로 모셔진다. 하산길에 구산성황사와 학산성황사에 들러 굿을 한다. 구산성황사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초입의 구산휴게소 앞에 있고 학산성황사는 굴산사 유허가 있는 학산동에 있다. 학산동은 전 서울시장 조순박사의 생가가 있는 곳이어서 이래저래 인구에 회자된다. 이어 국사성황신은 명주동에 있는 국사여성황사에 봉안된다. 단오가 시작되는 날까지 약 20일간 여성황신과 합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5월 1일이 되면 단오제가 열리는 강릉 남대천변에 가설된 단오굿당에서 터고사를 간단히 지낸다.

5월 3일 오후 3시를 넘으면 영신제 절차가 국사여성황사에서 시작된다. 제례를 올린다음 부정굿과 서낭굿을 간략히 하고 합사되었던 국사성황신위와 국사여성황신위를 강릉 남대천변의 단오 굿당으로 옮긴다. 이 행차는 신위를 필두로 신목, 제관, 무격, 일반시민 등의 순으로 선다. 굿당으로 가는 과정에 여성황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방댁(현재의 최돈웅 국회의원 집)에 들러 간단한 제를 올린다. 여성황신이 이 경방댁 마루에 앉아 있다가 국사성황신이 보낸 호랑이에게 물려가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신과 결혼한 다음 국사여성화신이 된 것이다. 이어 국사성황행차는 강릉시내를 행진한 다음 단오 굿당에 봉안된다. 행차가 도착되면 경문낭송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굿이 짧게 연행다.

현재형의 민속축제 강릉단오제

단오제의 실질적 시작은 5월 4일부터라 할 수 있다. 아침 9시에 강릉시장을 초헌관으로 하는 조전제가 1시간가량 거행되고 이어 10시가 되면 강릉단오굿의 막이 올라간다. 강릉단오굿은 3박 4일간 열

3. 강릉단오굿의 칠성굿
4. 무녀가 시주(별비)를 받는 모습

조전제

린다. 마지막날인 5월 7일에도 저녁 8시까지 굿을 한다. 매일 10시간씩 4일동안 40시간의 굿을 하는 것이다. 20명에 가까운 무녀와 양중이 21여종 29석여의 굿을 연행하는데 굿의 종류로는 문굿, 청좌굿, 부정굿, 하회굿, 조상굿, 세존굿, 산신굿, 지신굿, 축원굿, 심청굿, 장수굿(놋동이굿), 성주굿, 손님굿, 천왕굿, 제면굿, 용왕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대내림굿, 환우굿 등이 있고 굿 종류마다 한 석씩 연행하는데 축원굿은 7 8석 정도 연행한다. 굿이라 하면 섬뜩하고 왠지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오해다. 굿은 그렇게 홀대해도 좋을 만큼 만만한 장르가 아니다. 굿을 직접 보면 알 것이다. 얼마나 흥겹고 재밌고 신나는 것인지. 굿가락 또한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굿가락 사이사이를 들여다 보라. 얼마나 고통스런 수련과정을 거쳐 그런 가락이 가능해 졌는지 알 것이다. 풍물이 소란스럽다고만 느끼는가? 알고 들으면 샘솟는 생명을 느낄 것이다.

바이올린을 들고 가면 자랑스럽고 장구를 들고 가면 부끄러운가. 일반 공연장에서 연예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춤추고 술마시는 것은 세련되고 해도 되는 일이나 굿당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누항의 남루라서 근접하면 안되는가. 그렇지 않다. 굿을 보는 관점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단 바른 인식과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굿을 민속연희로도 볼 수 있고 클래식 공연으로도 볼 수 있다. 오락으로도 볼 수 있으며 기복성을 담은 종교행위로도 볼 수 있다.

또 굿을 더 이상 과거의 민속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현재의 일반적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분류되고, 연원이 과거에 닿아 있어 과거의 민속으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굿은 엄연히 진행형이다. 즉 현재의 민속이다.

강릉단오굿에 주로 참여하는 무속인은 신동해, 사화선, 빈순애, 박금천, 김명광, 김명대, 신성녀, 신길자, 김장길, 송동숙, 김명희, 송명희, 김정희, 송정환, 김정국 등이고 경북 영덕 이남의 굿패인 김석출 가계의 무속인들이 동참하기도 한다. 악을 치는 양중들 중에는 마음의 심연 저 끝으로부터 폭발하는 울림을 전해 주는 풍물 달인이 많다.

어느 하나 놓치기 아까운 굿이지만 그 중에서도 심청굿과 손님굿, 세존굿은 그 사설의 다양함에 놀라고 등노래, 뱃노래굿에서는 연희적 발랄함과 할머니들의 존재적 삶의 철학을 확인함에 놀란다. 그 외의 굿에서도 무속인들의 다재다능한 특질에 놀라게 된다.

전에는 강릉단오굿에서 탈굿을 하기도 했는데 제외시켰다. 동해안별신굿 제차에 들어있는 중도둑잡이놀이, 도리강관놀이, 범굿, 거리굿 등도 역시 제외되었다. 성황제라는 굿의 성격과 유교적 제차가 강조되는 굿이라서 희극적 요소가 강한 굿을 제외시킨 것이다. 강릉단오굿이 원래 기복의 성격을 지닌 축제였겠으나 현재는 종합예능 장르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슬픔과 웃음, 비장과 골계가 한데 어우러지며 음악, 연극, 미술 등 여러 장르를 녹여 만든 용광로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희극적이고 연희적 요소를 축소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단오굿외의 주요 민속연희로는 강릉탈놀이(강릉관노가면극)와 학산오독떼기가 있다. 강릉탈놀이는 기녀와 양반의 사랑이 거친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른다는 희극적 구조를 갖는 묵극이다. 이들의 사랑성취에는 풍농과 풍어를 비는 토착적

강릉단오굿의 장수굿(놋동이굿)

민속신앙도 곁들어진다. 학산오독떼기는 농사짓는 전과정이 한 시간 정도의 공연물로 형식화된 놀이이자 연희이다.

강릉의 단오제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기록으로는 1603년 강릉사람 허균의 것이 있다. 강릉 단오제의 짧지 않은 역사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강릉단오제가 전통으로만 지탱되는 것은 아니다. 강릉단오제를 지탱하는 기둥에는 강릉문화원이 있고 그 속에 단오제 위원회가 있고 강릉시청과 관련 행정기관이 있다. 또 쌀과 경비를 댓가없이 바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단오장에 와서 단오를 단오로 만드는 강릉시민이 있다. 그래서 강릉단오제는 현재형의 민속이고 축제인 것이다.